

깊어가는 가을, 담양으로 예술여행 떠나요

담양문화재단 '담양아트위크' 28일~11월 5일 개최

다미담예술구 아트페어·해동문화예술촌 '예술산책'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한중수교 기념전·맥주파티

소쇄원과 죽녹원, 담빛예술창고와 해동문화예술촌. 담양은 생태와 예술 두 가지를 테마로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떡갈비·국수 등 대표 먹거리까지 갖추고 있어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기도하다. 가을의 한복판 담양으로 예술여행을 떠나보자. '2022 담양아트위크'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담양 일원에서 열린다. 담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아트페어, 전시,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맥주 파티 등이 어우러진 이벤트다.

◇'유유자적' :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2022 담양아트위크 메인 행사인 아트페어 '유유자적 :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이 담주 다미담예술구(담양읍 담양읍 4길 24-27)에서 열린다. 기존 아트페어와는 다른 형식으로 마련된 행사는 제목처럼 담양에서 '유유자적'하며 예술을 접하는 기획이다. 행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및 작가들을 초청해 담양의 역사와 문화적, 인문학적 자산을 반영하고 특화시킨 전시로 꾸며졌다. 약 140명작가가 참여해 300여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는 현대 한국화, 현대미술, 사진, 공예, 독립책방과 영플레이어스, 판화 섹션으로 구성했다. 현대 한국화 섹션은 작가로도 활동중인 박종갑 경희대 교수가 동시대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변을 제시

한다. 현대미술 섹션은 독립큐레이터 임종은과 광주 예술공간 집의 문희영 대표가 참여해 국내 유명 중견 작가들과 지역의 청년·중견 작가 작품을 소개한다. 최연하 평론가가 참여한 사진 섹션은 국내 원로부터 신진사진작가를 아우르는 기획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갤러리 세 곳의 컬렉션과 초이스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다. 정유진 큐레이터가 기획하는 공예 섹션은 세계적인 공예 작가들과 지역의 젊은 공예 작가들을 함께 초대했다. 독립 책방과 영플레이어스(young players) 섹션에는 독립서점 '책과 생활'과 청년큐레이터 조하이가 참여해 지역의 청년 시인, 문학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며 판화 및 아티스트 에디션 섹션에서는 야오이 쿠사마·필립 쿨버트·오승운·박구환·정승원의 작품을 만난다. 부대행사로는 김정대 사진가의 '이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29일 오후 2시), 이다희·신두호 시인의 '비가 모두를 버리고 과일주의자-시인의 낭송과 잡담' (30일 오후 2시), 이효재의 '자연주의 효재와 함께하는 유유자적 담양' (30일 오후 4시)이 열린다.

◇작가 미술장터 예술산책 '아트 슈퍼마켓' 올해 4회째를 맞는 예술산책은 11월6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담양읍 지점1길 6)에서 열린다. 와시비아 대표 김대욱과 총괄 기획자 정의림이 참여한 올해 행사 주제는 '아트 슈퍼마켓'으로 누구

나 편하게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의 친근한 이미지를 미술장터에 빗대었다. 이번 행사에는 정정하·전영록·이인성·양나희·임현채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화, 입체, 미디어 아트 작가 46명을 초청, 37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참여작가 중 김류은·박한빛·윤성필 등 16명은 미술시장 진입 경험이 없는 신진작가로 주최측이 새롭게 발굴해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판매 수익금은 100% 작가에게 돌아간다. 28일(오후3시) 열리는 프리뷰 행사를 통해 미술 관계자와 컬렉터, 작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산책 발전 방안을 위한 담론,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맥주파티 담빛예술창고에서는 한·중수교30주년 기념 국제교류전 '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가 진행된다. 전시에는 김평준·김재성 등 담양 거주 작가를 비롯해 한국 작가 24명과 바비 버리스 등 중국작가 27명이 참여했다. 전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중견작가들과 함께 지역의 예술성을 키워나가는 실험적 공간 담빛장작스튜디오(구 동진의원창고) 입주 작가인 정광희·김치준 작가의 작업공간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11월4일까지 오후 2시~6시)도 열린다. 죽녹원 장인각과 광장 앞 분수대 앞에서 열리는 담양 공예인협회원전에서는 한지공예, 도자공예,



▲아트페어 '유유자적'에서 선보일 김선형 작 'garden blue' ▶담양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전 야외전시 모습.



묵공예, 대나무공예, 금속공예, 천연염색, 소복장, 국악 등 담양 공예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초청객과 지역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들의 놀이터'에 어떤 풍경 있을까

정승원 판화전...카페트 등 30여점 11월8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

판화작가 정승원의 작품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판화 속 배경 속에도 솔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마치 '월리를 찾아라'에 등장하는 월리를 찾듯, 동그란 안경에 비니를 쓰고 언제나 등장하는 작가의 모습을 찾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다. 작가는 관람자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물처럼 안겨주고 싶어한다. 늘 기어 속의 장소와 그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작품 소재로 삼아온 그는 유약했던 독립 풍경, 신선 여행을 다녀왔던 스페인 등의 추억을 판화로 그려냈다. 광주로 돌아와서는 양동시장의 풍경을 담아 내기도 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즐거운 추억을 소재로 작업하는 판화작가 정승원 개인전이 오는 11월 8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우리들의 놀이터(Our playgroun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신작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카페트 등 새로운 형식의 작업도 만나는 자리다.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 통합디자인과를 졸업한 정 작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유학을 마칠 무렵 판화를 접한 뒤 지금은 실크스크린 판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전시 주제에 맞춰 새롭게 선보이는 '놀이터' 시리즈는 작가가 아이와 늘 다니던 놀이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작품이다. 미끄럼틀 타는 아이, 모래놀이 하는 아이, 싸우는 아이 등 저마다의 일에 빠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작품에 등장하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해양공간이지만, 유년의 추억을 갖고 있는 어른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새'가 점잖게 타자에 앉아 있기도 하는 그의 작품은 유머러스하다. 여기에 밝은 색감의 화면이 어우러져 경쾌한 느낌을 자아낸다. 판화 작품은 아무



래도 회화보다는 색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색의 투명도 등에 신경을 써 색을 선택하는데 각기 다른 색의 조합으로 짙어낸 '놀이터'는 각각의 매력을 뽐낸다. '벼룩시장'은 새 시리즈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다. 알핏 필요없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벼룩시장에 나온 물건은 개인의 기록과 기억이 쌓인 소중한 것들이라는 점이 작가의 호기심을 자극해 작업 소재로 삼았다. 전시에서는 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전래동

화 10편에 나오는 '호랑이들'을 등장시킨 작품, 푸른빛이 인상적인 아쿠아리움 작품 등도 만날 수 있다. 또 '놀이터' 작품을 따뜻한 느낌이 나는 대형 카펫으로도 제작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 작가는 아동 하회탈 작업과 한지를 활용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놀이터 시리즈도 확장시킬 계획이다. 특히 내년 5월 오승우미술관 초대전에서는 설치, 영상 작업 등 확장된 작업세계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재를 만나다' 대금산조 이생강 무대

빛고을국악전수관 26일 토크콘서트...공연·대담 진행

빛고을국악전수관의 토크콘서트 '문화재를 만나다'가 26일 오후 7시 열린다. 이날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죽향 이생강(사진)이 공연과 대담을 진행한다. 이 명인은 토크콘서트와 함께 대금과 소금, 통소, 단소 등을 이용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단에는 대금산조 이수자 최명호 선생과 이수선 민

속학 박사가 함께한다. '문화재를 만나다'는 문화재 보유자 회로예락을 통해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국악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국악곡과 해설이 함께 진행되며 관객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무형문화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매일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다섯번째



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문화재를 만나다'의 마지막 공연으로 펼쳐진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개관한 빛고을전수관은 국악 문화학교 9개 강좌 17개반 및 어린이 국악교실 2개반 국악강좌와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가 떠오르는 일상, 디카에 담다

나주 출신 박연식 디카시선집 '봄을 초대하고 싶다' 펴내



시적 이미지나 영상을 포착해 그것과 함께 짧게 표현한 시를 디카시(詩)라고 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누구나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촬영하고 이에 맞춰 짙막한 시를 쓰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다. 나주 출신 박연식 시인이 디카시선집 '봄을 초대하고 싶다' (서영)를 펴냈다. 사진과 함께 압축된 시 130여 편이 수록된 작품집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추억, 기억 등을 환기하는 작품을 위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진과 시도 담겨 있어 시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명주실 같은 바람/ 불에 스티일 때/ 물근 싫지 않은 때내음/ 어머니 닮은 쫄래꽃/ 그 눈물겨운 흔적."

위 시 '추억 단상'은 계간 '오문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쫄래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리는 내용을 작품화한 것이다. 실제 시인에게는 어머니가 해준 쫄래꽃 화전에 대한 추억이 있다. 할머니 생신날, 어머니가 해주셨던 화전에 대한 단상이 시의 모티브가 됐다. "자주 고를 옥색 저고리에 폴 푼인 옥양목 행주 치마를 입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대청으로 동봉서 주하며 할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했다. 따내음 배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시인에게 오호려 섰렘이고 즐거움이였을 것이다." 사진 속 쫄래꽃은 어머니를 닮은 꽃이라서 아



련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고단한 삶의 그 눈물겨운 흔적은 시인에게 그 그리움의 메타포다. "추억과 함께 노랗노랗 익어 가는 향기 주머니가 어머니를 더 그립게 한다"는 표현이 잔잔한 울림을 준다. 한편 올해 만 80세인 박연식 시인은 광주여고와 광주속문여자대학 가정교사를 졸업했다. 상당 교사로 30여 년 근무했으며 아시아서적문학수필상, 제주시 전국남송대회 우수상, 광주문협 전국시낭송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울지마 톤즈' 제작 구수환 PD 북콘서트

광주시립산수도서관 28일...내달 12일 김성호 생태학자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이 10월, 11월 두차례 가을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생의 반전, 아름다운 인연'을 테마로 역발상과 용기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며 인생 2막을 펼친 구수환 PD((사)이태석 재단 이사장·사진)와 의대 생물교수에서 생태학자로 변신한 김성호 교수의 감동 스토리를 나누는 기획이다. 28일 오후 5시 산수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첫번째 북콘서트에서는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의사가 돼 수단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다시 태어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을 상영하고 팬플루트 공연을 진행한다. 문의 062-613-7812.



마음' 책을 주제로 생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논하는 자리다. 남다른 생태 관찰과 그 속에서 깨달은 깊이있는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자리로 노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문의 062-613-781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